민주노총은 팔레스타인 연대 활동 방해가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라!

지난 9 월 13 일 전국이주노동자대회에서 민주노총 간부들이 '팔레스타인인들과 연대하는 사람들'(이하 '팔연사')의 팔레스타인 연대 활동을 방해했다.

당시 우리는 집회 참가자들에게 10 월 11 일 '가자 학살 3 년, 국제 공동 행동'을 알리고 있었다. 그런데 민주노총 김선민 총무국장은 '팔연사' 부스를 찾아와 "10 월 11 일 국제 공동 행동이 노동자연대의 행동과 같은 것이냐"고 거듭 물었다. 또, '팔연사' 부스에서 연대 물품을 구입하고 명함을 받아 간 참가자들에게 다가가 이렇게 소리쳤다.

"팔연사는 노동자연대가 있어서 같이 안 한다. 10 월 11 일이 아니고 10 월 3 일 집회로 참가하라."

집회 사회자였던 민주노총 정재현 조직쟁의국장도 공식 연단에서 참가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방송했다.

"오늘 집회하는 동안 '팔레스타인 연대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면서 웹 포스터를 배포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 웹 포스터를 배포한 단위는 민주노총과 연대하지 않는 노동자연대가 주축이 돼서 진행하는 행동입니다. 민주노총은 팔레스타인 평화 연대를 위해서 10 월 3 일날 보신각에 모일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웹자보에 공지된 일정은 민주노총과 무관하단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처럼 김선민 국장은 우리의 활동에 관심을 보인 참가자들에게 다른 집회에 참가하라고 했고, 정재현 국장은 집회 공식 연단을 이용해 '팔레스타인인들과 연대하는 사람들'의 연대 행동 홍보를 방해했다.

우리는 9 월 23 일 전국이주노동자대회를 주최한 민주노총·금속노조·이주노조에 공식 항의 서한을 보내 이러한 행동에 항의하고 재발 방지를 요구했다. 이후에도 추가 공문과 수 차례 연락을 통해 민주노총의 입장을 확인하고자 했다.

그 과정에서 이정희 당시 민주노총 정책실장은 엄미경 사무총장 직무대행과 논의한 결과라며, **민주노총이 노동자연대와의 연대 단절을 결정했을 뿐, '팔레스타인인들과 연대하는 사람들'이나 노동자연대가 참여하는 연대체에 대해서는 별도의 조직적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고 했다. 또한 민주노총 내부에서도 의견이 다르며, 개인적으로 정재현 국장의 행동이 과했다고 밝혔다.

섹알마문 이주노조 수석부위원장도 당시 행동에 대해 "그런 부분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날 (정재현 국장과 김선민 국장이) 잘못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민주노총이 '팔연사'와의 연대 단절이나 활동 제한을 결정한 바도 없는데, 민주노총 간부들이 우리의 연대 활동을 방해한 것이다. 이는 조직적 결정에 근거하지 않은 부당한 행동이다.

따라서 **'팔연사'에 대한 별도의 조직적 결정이 없었던 만큼, 민주노총은 간부들의 활동 방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지금까지 우리는 그러한 조치가 취해졌다는 소식을 듣지 못했다.

우리의 항의에 답하지 않고 이를 외면하는 것 역시 그 자체로 문제다. 이는 민주노총 간부들의 말과 행동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들의 목소리까지 계속 외면하는 것과 같다.

우리는 목소리 없는 사진 속 존재가 아니다. 우리의 목소리와 우리 친구들의 목소리는 중요하다. 우리에게는 자신의 의견을 말하고, 그 목소리를 들리게 할 권리가 있다.

민주노총의 공식 연단을 이용해 우리의 목소리를 억누르고 배제하는 것은 민주주의 원칙에 어긋나는 권위주의적 행위이며, 중단돼야 한다. 이주민들의 표현과 조직 활동의 권리를 존중한다는 것은 민주노총 자신의 행동을 비판하는 목소리를 포함해 이주민들의 독립적인 목소리를 존중한다는 뜻이다.

'팔연사'는 재한 팔레스타인인들을 비롯해 다양한 이주 배경의 활동가들과 한국의 시민사회단체들이 함께하는 연대체다. 팔레스타인인들은 이곳에서 직접 활동을 조직하고 이끌어 가고 있다.

우리 연대체에는 44 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이를 특정 단체 하나로 환원하거나 그 단체의 부속 조직처럼 취급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참여 단체인 노동자연대와 지난 3 년 동안 팔레스타인 연대 활동을 함께 조직해 왔다. 이러한 협력은 우리가 독립적으로 선택한 것이다. 어느 누구도 자신들과의 갈등을 이유로 우리에게 특정 참여 단체를 배제하라고 강요할 권리는 없다.

팔레스타인인들에게는 자신의 해방을 위해 누구와 연대하고 어떻게 활동할지 스스로 결정할 권리가 있다. 이러한 독립적인 연대 활동은 존중받아야 한다.

팔레스타인인들과 그 친구들이 자신들과 무관한 갈등과 결정의 피해자가 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 민주노총과 노동자연대 사이의 갈등이 팔레스타인인들과 그 연대자들을 배제하거나, 그들의 목소리와 활동을 방해하는 구실이 돼서는 안 된다.

팔레스타인 연대는 팔레스타인인들의 의사와 연대 상대를 선택할 권리를 존중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따라서 우리는 정재현 조직쟁의국장과 김선민 총무국장의 팔레스타인 연대 활동 방해를 규탄한다. **민주노총은 조직적 결정 없이 벌어진 이러한 부당한 행동을 바로잡고,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 다시 팔레스타인 연대 활동 방해가 벌어진다면, 우리는 재한 팔레스타인인들과 다양한 이주 배경 참가자들, 한국 단체들과 함께 항의 행동에 나설 것이다.

2026 년 11 월 2 일

팔레스타인인들과 연대하는 사람들